

# 예산 줄속 편성에 날아간 도로 확장

## 市, 지방비 확보 못해 국비 50억 반납 북구 일곡~용전간 확장 공사 못해

광주시의 줄속예산편성으로 당초 금년 착공될 예정인 '북구 일곡~용전간'(1.6km) 도로 확장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 구간은 광주 외곽 도로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올 착공 예정인 이 도로 확장공사가 '백지화'된 것은 광주시가 도로 확장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50억원을 반납하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 특성상 지방비 50억원을 올해 확보해야 하나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비 반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 예산편성이 줄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구간은 광주 북구 외곽도로 중 혼잡도가 가장 심한 도로로, 출·퇴근 병목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곳이다.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려는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

구간 이용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10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비 50억원 반납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구간의 총사업비는 544억원. 광주시는 올해 국비·지방비 50억원씩을 부담해 사업을 착공하려했으나 국비는 확보하는 대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말았다. 시의회측은 "사업 담당부서가 예산안 편성 시기마다 줄기차게 예산을 책정,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선 순위에 밀리면서 포함되지 못했고 결국 힘들게 따낸 국비 예산을 반납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무 부서는 올해만 3차례에 걸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사업'은 출·퇴근길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잦은 정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돼왔다. 시의회 조호권(민주·북구 4)의원은 "광주시가 비용지출이나 사업계획을 줄이는 등 예산을 절감한다면서 정작 시급한 예산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전체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들기자 dok2000@kwangju.co.kr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와 광주·전남 22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념행사'를 갖고 다양한 인권 문화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로비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트리에 각자의 새해 소망을 적은 카드를 매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청사 시민홀 문화공간 자리매김 전시·공연 158회**

광주시청사 '시민홀'이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시가 지난 2004년부터 청사 1층 민원실 앞 시민홀(600㎡)을 상설전시장·실내공연장으로 개방한 이후 모두 158회, 830일 동안 전시·공연이 열렸다. 올 12월 현재 41회(210일)의 각종 전시회와 실내 공연이 진행돼 시민들이 다채로운 문화전시와 공연을 즐겼다. 그동안 열린 전시는 '한·일 자연사진전시회', '국제자매도시사진전', '서예·문인 화작품전시회', '빛고를 분재연합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공연' 등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 “권력 가진 정부, 인권 무시 여전”

###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세계 인권선언 60돌 선언

세계 인권선언 60주년인 10일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세계 인권선언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인권의 날 기념행사도 다양하게 열렸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6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의 세상을 위한 존엄성과 정의의 지지한다"면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1980년 5월항쟁에서 목숨을 바쳤던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문화된 기본적인 자유가 여전히 권력을 가진 정부에 의해 무시되고 간과되고 있기에 발표된 지 60년이 흐른 지금에도 세계인권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80년 5월항쟁과 같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독재와 폭정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증진시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세계의 정치 수반들이

이 같은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와 목표를 재차 확인하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국내의 시민사회단체 및 지도자들이 세계인류와 소외받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활동을 더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인권상은 5.18 기념재단이 지난 2000년부터 5.18 민주화운동의 기본 정신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구현하고 인류의 평화와 인권 신장, 민족분단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은 총 1개 단체, 10명(공동수상 포함)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이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22개 단체와 함께 인권영화 상영·축하공연 등 다양한 인권문화 행사를 열었다. /이종형기자 golee@

모든 옥외광고물 22일부터 실명제

오는 22일부터 광주시내에 내걸리는 옥외광고물은 모두 실명제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광주시내에 내걸리는 옥외광고물에는 허가 관청의 허가 및 신고번호, 부착 기간, 자치구명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즉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로·세로 각 5cm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1일 이전에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토록 하고, 전면 시행이 곤란할 경우 자치구 조례로 대상 지역을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도록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광주 먹여 살릴 5대 신사업 발굴

## 市·테크노파크 전략사업기획단 제시

광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5대 신사업 과제 발굴·제시됐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전략사업기획단은 1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2008 산업정책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갖고 자동차, LED(발광다이오드), 전통식품, 디자인 산업 등 4개 부문 5개 신사업 과제를 제시했다. 5개 신사업은 ▲인간친화형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 육성 ▲농업용 LED 조명시스템 개발 ▲자동차 전장 부품 재제조(Remufacturing) 연구·생산기반 구축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산업화 연계 및 광주 디자인산업 육성 ▲전통 식품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이다. '인간 친화형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 육성' 방안의 골자는 클린디젤차

동차,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전략으로는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자동차 부품 및 모듈화 복합단지 조성, 친환경자동차 부품 개발 등이 제시됐다. '농업용 LED조명 시스템 개발'은 식품 성장을 위해 인공 광원을 채택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LED사업을 다각화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동차 전장부품 재제조 연구·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생산 위주였던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폐차자동차의 재제조·생산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전장 부품 재제조 클러스터 구축, 재제조 부품기업 보육 및 연구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산업화'는 일회성 행사에 머물고 있는 디자인비엔날레를 산업화로 연계시키는 것이며, '전통식품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전략'은 호남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장류, 김치, 떡 산업을 집적화해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이들 사업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호박
나이트

광주첨단 · 폭스존열

12월 11(목) 12(목)

설운도

OPEN

부킹전국 365일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별이 보이는 꿈에 그리던 나이트가 첨단상륙!!